

‘한국의 금속문화유산 오천년’ 6월29일까지 동곡뮤지엄 특별전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4월호

고려 국보급 유물 ‘참외모양 금도금 은병’ 최초 공개된다



‘참외모양 금도금 은병’

‘고조선 청동검’·‘고구려 금관’ 등
시대별 금속공예 유물 100여 점
금속공예 역사·미학적 가치 조명

‘참외모양 금도금 은병’ (銀鑲鍍金蓮花折枝紋瓜形瓶)은 고려시대 은판으로 제작된 꽃병이다. 국내 단 한 점만 전해오는 유일한 유물로 문화적 가치가 크다. 표면 전체에 금도금을 해 은기 형태가 광채가 돌며 시각적 웅장함과 섬세함을 갖췄다. 특히 참외모양의 외관과 정교한 문양은 당대 선조들의 수준 높은 미의식을 보여준다. ‘참외모양 금도금 은병’이 최초 공개돼 눈길을 끈다. 지난달 28일 개막해 오는 6월 29일까지 열리는 보문복지재단(이사장 정영현) 동곡뮤지엄 특별전 ‘한국의 금속문화유산 오천년’에서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 금속공예의 역사와 미학적 가치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다.

전시에서는 ‘참외모양 금도금 은병’ 외에도 시대별 금속공예 유물 100여 점도 선보인다. 고조선 시대 청동검, 고구려 금관, 신라 금동관, 가야 금동관 등 유물은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금속문화를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김정훈 학예실장은 “저희 뮤지엄에서는 매년 주제를 정해 전시를 해왔다. 처음에 고려청자를, 그 다음으로 조선시대 백자와 분청사기를 선보였다”며 “그와 같은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기 전시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전은 금속공예를 일반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다”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표 유물을 거론할 때 도자기를 많이 꼽았는데, 이번 전시를 매개로 금속공예 기술도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물 가운데 ‘고구려 불꽃모양 장식금관’도 눈에 띈다. 화려하면서도 정제된 문양과 형태는 우리 선조들

의 예술적 심미안을 보여준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한 조형은 당대 금속 세공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특별전에서는 기존의 유물과 소장가들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언급한 유물 외에도 남북국 시대,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유물이 망라돼 있다. 특히 전시장 안쪽 공간에 엄선된 6점의 유물은 전시의 백미이다. 언급한 ‘참외모양 금도금 은병’을 비롯해 ‘모란무늬 받침잔’, ‘항완’, ‘금속활자’, ‘금동관’, ‘금관’ 등이다. 김대환 관장은 “‘참외모양 금도금 은병’은 고려시대의 금속공예 기술, 세계적 수준의 우리 도자기 제작 기법을 보여주는 국보급 유물로 평가된다”며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시대별 뛰어난 금속공예기술과 기법, 미와 예술적 가치 등을 소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전과 연계한 학술대회도 최근 동곡뮤지엄에서 펼쳐져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금속문화유산 오천년 학술대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연구자 8인이 참가해 금속



‘고구려 불꽃모양 장식금관’



‘은제허리띠’와 전시장 전경

지역 젊은 예술가들 신선한 클래식 무대

아르플래닛 ‘제1회 정기연주회’…5월 3일 ACC 극장2

광주의 청년예술단체 아르플래닛(ARPLANET)이 지역 클래식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아르플래닛은 오는 5월 3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펼친다. 아르플래닛에 따르면 예매 시작 20일만에 200여명이 공연예약을 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젊은 지역 예술가들로 구성된 아르플래닛은 지난해 창단 이후 총 6회의 공연을 진행, 1900여명의 관객을 모으는 등 지역 클래식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아르플래닛이 창단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식 시리즈 공연으로, 창단 2년 차를 맞아 단체의 음악적 정체성과 구성원들의 개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번 공연에서는 리스트, 베토벤, 프로코피예프,

쇼팽 등 다양한 작곡가의 피아노 작품이 연주되며, 8명의 연주자가 각각의 해석을 담아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또 전남대 사진 동아리 ZOOM(신승섭, 박준상)이 공연기록 촬영을 담당한다. 이들의 협업은 단순한 공연 아카이빙을 넘어 지역 내 청년예술인들 간의 연대를 의미한다는 것이 아르플래닛의 설명이다. 최혜지 아르플래닛 대표는 “단체는 지역 예술가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무대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한다”며 “또 관객들도 클래식을 편하고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아르플래닛 공식 홈페이지 혹은 SNS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전석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아르플래닛

신규 음악, ‘AI 안 썼다’ 보증해야 저작권 등록

한음저협 ‘인간 창작’ 확인·보증 절차 추가…AI 사용 확인은 어려울 듯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신규 음악 저작권 신고 시 AI(인공지능)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보증을 받는 절차를 도입했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지난달 24일부터 저작권을 신고할 때 해당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뤄졌는지를 신고자가 확인·보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하위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면 저작물 신고접수는 가능하지만, 등록이 보류된다”고 안내했다. 또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보증했다더라도, 추후 AI 사용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나 저작물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확인하고자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이 이렇게 하는 것은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저작권 인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AI를 100% 사용해 생성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회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예향



‘호남예술제’ 70년 발자취와 예술인들 ‘따뜻한 봄날 떠나는 당일치기 섬 여행’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이자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광주일보에서 주최하는 ‘호남예술제’는 195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인재를 발굴하며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4월호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예술축제인 ‘호남예술제’의 70년 발자취와 ‘호남예술제’를 거쳐 간 예술인들을 살펴보고, 해마다 새롭게 변모한 ‘호남예술제’의 변화상을 자료사진을 통해 돌아본다. 예향 초대석은 식물학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원예학 연구자인 이소영을 만나고 왔다. 식물학 일러스트(식물 세밀화)는 식물 종(種)의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특징을 그림 한 장에 기록하는 예술이자 과학이다. “관찰하면 할수록,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더 큰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식물을 통해 깨우친다.” 20년 가깝게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이소영 식물세밀화가의 식물학 그림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공간적 발달권’ 두 번째 시간은 대학자 고봉 선생의 서원 ‘월봉서원’을 찾았다. 광주 광산구 임곡에 자리한 월봉서원은 400여 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조선 중기 유학자 고봉(高峯) 기대승 선생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월봉서원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살롱 드 월봉’ 등 다양한 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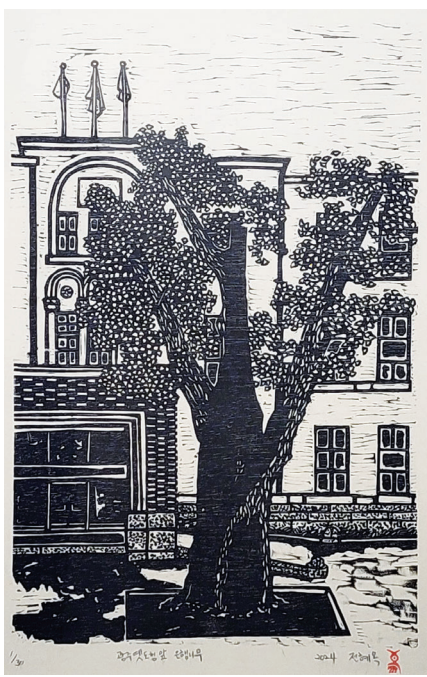
램을 통해 박제된 공간이 아닌, 시민과 소통하고 있는 월봉서원에 다녀왔다.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는 따뜻한 봄날 떠나는 당일치기 섬 여행이다. 부드러운 바람과 푸른 바다, 생각만으로도 힐링되는 여행길.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조용한 섬마을 고흥 우도, 해안 데크길과 액티비티한 썰물택을 즐길 수 있는 강진 가우도로 안내한다. 배를 타고 섬의 낭만을 맛보고 싶을 땐 ‘꽃섬’ 여수 하화도도 현명한 선택이다. ‘멋과 맛 함께, 남도유람’ 여행지는 ‘천사의 섬’ 신안군이다. 보석같이 흠뻑려진 신안의 ‘1004 섬’들은 개성적인 결을 갖는다. ‘1도·1뮤지엄’과 ‘1섬·1테마정원’ 사업에 따른 결과다. 수선화와 톨립, 목련, 새우란, 라벤더 등 봄꽃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피아노섬 축제’와 ‘삼막(삼페인+막걸리) 예술축제’도 눈길을 끈다. 생동하는 4월의 봄기운을 따라 신안의 자연과 문화를 만끽해보자. 이외에 구상화단 거장의 삶과 예술혼을 담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무안 오송우미술관, 베토벤·하리보의 도시 독일 본(Bonn)으로 떠나는 유럽 소도시 기행,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입단 앞둔 발레리노 전민철,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새 드라마 주연 맡은 84세 국민배우 김혜자의 63년 연기 인생 등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판화로 풀어낸 ‘나무’ 이야기

전혜옥 목판화전, 6일까지 전일빌딩245 시민갤러리

판화로 이야기를 하는 작가가 있다. 판화작가 전혜옥. 그는 판화를 매개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낸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이력과 무관치 않다. 모든 예술은 장르가 무엇이든 작가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테다. 전 작가 목판화전이 오는 6일까지 전일빌딩245 3층 시민갤러리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 주제는 나무.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은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당산나무 등 다채롭다. 전 작가는 “지난 2021년 전시를 하고 난 이후 이번에는 나무만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언젠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동명동 방향으로 걷다가 나무 두 그루를 본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강렬했다”고 말했다.

전시장에는 나무를 ‘무등산’으로 명명한 판화를 비롯해 ‘광주 옛도청 은행나무’, ‘광주 칠석동 은행나무’ 등이 관객들을 맞는다. ‘광주 옛도청 은행나무’는 강렬한 느낌을 환기한다. 오랜 세월 광주의 역사와 아픔을 지켜본 나무는 의연하면서도 위엄이 있다. 무수히 많은 은행잎은 오늘의 우리에게 감춰진 또는 잊혀진 이야기를 건넨다. 홍성담 작가의 권유로 판화를 시작했다. 전 작가는 기존 미술 전공자와는 다른 감각과 서사가 잠정일 수 있다. 미술 전공이 아닌 국문학을 전공한 작가가기에 서사



‘광주 옛도청 은행나무’

에 대한 감성, 애착이 남다르다. 전 작가는 “판화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며 “작업을 하는 동안 ‘사각사각’ 소리가 그 자체로 힐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효복 시인은 “목판을 파고 다듬는 전혜옥 작가의 칼 맛은 우리의 체온만큼 따뜻하고 자상하다”며 “마음속에 두근거리는 것,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무엇은 그는 매일매일 작업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